

첫 임상 실습 인상기

연세의대 간호학과 2년 유 경 자

어제까지 복장을 몇번 입어봤는지 셀 수도 없다. 어제저녁 잠자던 한방 친구가 「넌 매일 복장만 고치니?」 하고 말한다. 수첩과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어 놓고 단년필에 잉크도 가득 담아놓고 기초간호학책을 쪽—한 번 읽어보고 전에 부터 연습해 놓은 들어갈때 나갈때 인사말을 다시 외어 보았다. 아침 7시 30분에 모여야 하는데 혹시 늦잠이나 자지 않을까 일찍기 깨워 달라는 부탁을 몇번이나 다짐 받아놓고 누었다. 영—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간호 할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 상처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열살 전후의 어린이? 아니면 뼈 빠마르고 60을 넘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뇌와 체념의 눈동자를 지닌 할머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느결에 잠이 들었다. 잠짜 놀라 깨어보니 밖이 훤하다. 올빼미 눈을 해가지고 시계를 보았다. 12시가 조금 넘었다. 미심적어 불을 켜고 다시 보았으나 역시— 내일 딱 칠 일을 생각하다 다시 잠이 들었다. 5시에 일어나 준비하기 까지 몇번이

나 잠자리에서 시계를 보았는지—. 복장을 입고 cap을 쓰고 하는 동안 내마음은 에드바른같이 공중에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떤친구는 「시절가는 기분이야」 라고 말한다.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 되어진다. 또한된 오늘 할일들을 외어보았다. 오늘은 chapel 시간에 앞에 앉아있는 복장입은 상급생 언니들이 유달리 성스롭게 보이고 내자신 어떤 사명감에 가슴이 억눌려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일생의 시절이 될 오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렸다. 20분간의 orientation을 받은 후 실습을 시작했는데 내가 맡은 환자는 입원한지 19일째 되는 유행성간염을 앓는 49세의 남자 환자였다. 필요한 linen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고르고 타올, 일몰 파우더 등을 챙겨가지고 병실문을 녹크했다.

「오늘아침엔 제가 간호 해 드리겠어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렇게 단단히 연습하고 갔건만 확실히 내 음성은 떨렸었고 얼굴은 온통 홍당무

우가 되었었다. 세수는 하였다고 하시길래 등 맞싸지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그건 뭇하러 하지?」 하신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입원한 지 오래피셔서 욕창의 우려가 있으니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좋으신 것입니다.」라고했더니 「그때?」 하시며 순수히 협조해 주셨다. 모든준비를 다하고 막 시작하려는데 「저 창문쯤 닫았으면」라고 말씀하신다. 창문쪽을보니 창문이란 창문은 온통 활짝 열려져있지 않는가? 어떻게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필경 내 얼굴은 또 홍당무우가 되었으리라. 다하고 옷을걸치시며 「아— 참 시원한데」 하시며 기분좋아 하신다. 의자에 앉으시게 한 다음 침상을 만들었다. 침상은 탄탄하고 반듯하게 할수록 환자가 편안해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 있는힘을 다하여 땡땡하게 만들었다. 홑이불이니 침상보니 베개넋을 다 새것으로 갈아놓았다.

「2학년이랬지?」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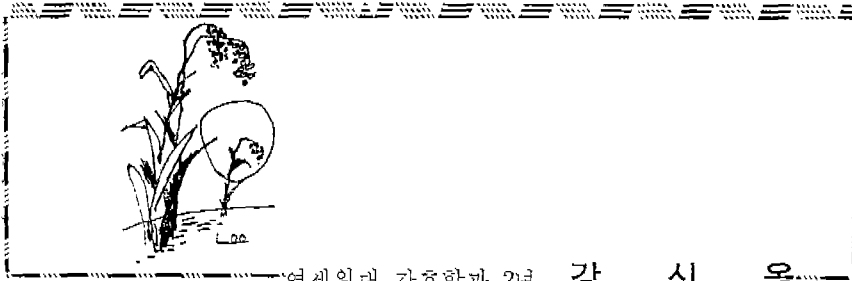
「네」

「우리딸애도 지금 2학년인데, 오늘이 처음 실습인가?」

「네」 (내 행동과 하는일이 껍 서를 었나 보다.) 침상을 다 만들고 창문가를 보니 꽃이 껍 소담스럽게 껍혀 있다. 「어마! 이 껍향기가 참 좋네요. 껍도 껍 예쁘고요.」

「그래? 우리 딸애가 껍다 껍지?」

껍병의 불을 껍아 주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땡밤울이 송송 뻗어 있었다. 주위 정돈을 하고 있는데 졸업간호원이 주사를 놓으러 들어 오시더니 「방안이 아주 산뜻해 껍군요. 껍끗하고요.」 하시며 방안을 껍—틀러 보신다. 정돈을 다하니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식사준비를 해드리고 나니 공부시간에 대기가 바쁘게 되었다. 「몸조리 껍하세요.」하고 인사를 껍다. 「껍 고마웠어, 내일 또 오나?」 「아니요, 내일은 더 껍하는 언니가 은답니다. 편히 쉬세요.」 인사를 하고 나왔다. 마음이 호뻍하다.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는 다 어더로 새어나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하루종일 공연히 즐겨왔다.



연세의대 간호학과 2년 강 신 옥

되풀이 되는 自然의 흐름이——. 오늘 또 神의 섭리로 이루어진 날. 平和스럽기만 한 아침 햇살은 지난밤의 긴장을 잊게 해 주었다.

수선된 오늘 아침일이……. 바로 내가 첫번째로 병실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처음으로 입어 본 uniform.

언제나 동경해 오던 하얀옷의 미소면, 실험실 벽에 걸린 사진들 속의 간호원 모습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양과는 너무도 달라 실망해 버렸다.

時間이 너무도 일렀다.

20분의 여유가 있어 나는 실습책을 펴고 넘기기 始作했다.

소극적인 나의 성격으로 보아 환자와의 對話를 잘 할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7時 20分.

時間의 촉박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2병실로 갔다.

아침보고를 한다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 서있던 졸업간호원이나 상급생 언니들이 처음 온 우리를 쳐다 보았

다. 내가 맡은 환자는 위장염을 앓고 있는 17歲의 女子 환자였다.

내가 처음 방에 들어 갔을 때 몹시 아픈 얼굴을 하고 만사가 다 귀찮다는 表情을 하고 있었다. 난 조심스럽게 실습실에서 배웠던 일을 기억해 가며 환자에게 일어나 앉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날려고 했다. 난 한팔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고 침대에서 내려 의자에 앉혔다. 얼마 후 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곧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소리를 질렀다. 겁이난 나는 당황해서 곧 수간호원에게 알렸다. 잠시 후 수간호원이 무슨 약인지 갖다주어 그 약을 먹은 후 그는 아픔이 줄 것 같아 앉은 듯 했으나 나는 여전히 뛰는 심장의 고동을 억제해 가며 병실정돈을 계속했다. 일을 대강 마치고 내가 침상 옆으로 가만히 가서 “아직도 배가 아프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어제밤에도 아파 잠을 못 잤다고 말하면서 찌프린 표정으로 나를 힐끗 쳐다 보

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여전히 배를 울켜주고 있을까? 한달전에 입원한 그녀는 천의 살찐 모습을 나에게 이야기 하며 못내 아쉬워 하는것 같았다. “너무 걱정마세요 곧 낫게 될꺼야요.” 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음식을 잘먹지 못해서 그렇지 만 앞으로는 병이 나아서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게 되면 곧 그 천의 모습이 될 꺼라고 이야기 했다. 시간이 다 되어 나오려 했을때 그녀는 또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일주일 후 아니면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나와 벌써 친해진 것일까? 글썄... 속으로 뇌까리며...병실문을 나왔다.

× × ×

몇일후.

반복되는 병실 차례가 이제 나의 맘속에 긴장을 좀 풀어 놓는가 보다.

환자와의 對話.

처음보다는 환자를 대하기가 덜 긴장이 됐다.

오늘 맡은 환자는 어제 다리 수술을 받은 9歳の 어린이. 참 예쁜아이였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나를 보고 아는것 같이 웃었다. 난 이렇게 말했다. 웃으며.....

“오늘은 나하구 목욕해 볼까? 깨끗히?” 그는 불쑥 “선생님”하고 불

렀다. 난 선생님이란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재활원에 매일 오셨죠?” 라고 물었다. 난 놀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나를 재활원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많은 볼구의 어린이들이 모인 그곳中 한 어린이가 오늘 또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아픈다리를 참으며 성한 다리가 되기를 기다리겠지——.

수술이 얼마나 아팠을까.

“참 잘 알아 보는데?” 나는 아는 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는 않았지만.....

목욕을 시키며 난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척 좋아했다. 빨리 다리가 나아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서로 손을 꼭잡고 약속하고 병실을 나왔다.

이 많은 환자들.....

간호원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부터 피 할려고 몹시 애쓰는 것 같이 보인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병실에서 얻은 감동은 자신을 반성게했다. 나 자신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神께 빌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환자를 돌보며 生活할 수 있는 힘을 줘시라고.....